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7.1(일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장희 과장(044-203-5290)	담 당 자	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 김효 사무관(044-203-5214)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, 미국 방문결과 종합

❶ 미국 의원·재계 대상 자동차 232조 관련 면담을 통해 공감대 형성

❷ 2021년 차기 의장국으로 세계가스총회 폐막식에 참석

❸ 원전 수출 협력 및 에너지 교역 확대 관련 의견 교환

□ **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현지시간 6. 27.(수) ~ 6. 29.(금) 워싱턴 디씨(D.C)에서 미국 **정재계 유력 인사**를 대상으로 **자동차 232조 관련 아웃리치**를 진행하여, 미측 인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○ 아울러, **세계가스총회 폐막식**에 참석하여 **천연가스 관련 한국의 역할과 미래 협력 강화 방안**을 논의하였다.

1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, 수입차에 대한 안보 영향조사 관련 대미 현장설명

□ 백 장관은 **주요 의원, 자동차 협회,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** 등 **정재계 유력 인사**들과 만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**수입 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**에 대한 **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**했다.

< 자동차 아웃리치 관련 주요 면담 인사 >

대상	면담자	일자	소속	특이 사항
의회	❶에드 로이스 (Ed Royce)	6.27	하원, 공화, 캘리포니아	코리아 코커스* 공화당 공동의장, 하원 외교위원장 * 미 의회 내 지한파 모임
	❷스테니 호이어 (Steny Hoyer)	6,27	하원, 민주, 메릴랜드	하원 원내총무
	❸테리 스웰 (Terri Sewell)	6.27	하원, 민주, 알라바마	현대차/부품업체 등 총 62개 기업 진출
	❹조니 아이잭슨 (Johnny Isakson)	6.28	상원, 공화, 조지아	기아차, 금호타이어 등 총 72개 기업 진출
	❺그렉 왈든 (Greg Walden)	6.28	하원, 공화, 오리건	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
	❻리사 머카우스키 (Lisa Murkowski)	6.28	상원, 공화, 알래스카	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장
재계	❶맷 블런트 회장 (Matt Blunt)	6.28	자동차협회(AAPC)[1]	美 Big3(FCA, Ford, GM) 대표단체
	❷죠슈아 볼튼 회장 (Joshua Bolten)	6.29	비즈니스라운드 (BRT)[2]	美 주요기업의 CEO 대변 조직

1) 미국 **빅3(포드, GM, FCA)를 대표하는 단체**로, 자동차 관련 국제무역정책 담당
2) **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를 대변하는 미국 국내의 유일한 조직**

❶ **에드 로이스(Ed Royce) 하원 외교위원장** 및 **스테니 호이어(Steny Hoyer)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** 등과의 면담 계기에,

- 한미 양국 자유무역협정(FTA)을 통해 **상호호혜적인 교역여건을 조성**한 만큼 미국의 **자동차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우려**가 크다는 점을 전달하고,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마련한 **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역기반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, 3. 28.** 원칙적 합의를 이룬 **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협상**에서 미국 **자동차 분야 우려가 기반영**되었음을 강조하면서 **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**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❷ 현대·기아차가 진출한 **조지아주의 조니 아이잭슨(Johnny Isakson) 상원의원**과 **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(Terri Sewell) 하원의원** 등과의 면담 계기에

- **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의거해 양국의 투자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설명**하고, **자동차와 부품에 232조 관세조치**를 부과할 경우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및 생산 감소 등으로 해당 **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**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.

※ 한국 자동차 업계는 그간 **미국에 100억불 이상을 투자**하여 11만 명 이상의 **고용**(딜러망 등 포함)**을 창출하는** 등 **지역경제 발전에 기여**하고 있으며, 특히 미국 내 우리 **자동차 기업**의 진출은 **앨라바마州**와 **조지아州에 집중**

❸ 미국 **3대 자동차 기업**(포드, GM, FCA)**을 대표**하는 **미국 자동차 협회**(AAPC: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)의 **맷 블런트**(Matt Blunt) **회장**과의 면담 계기에,

- 3. 28. 원칙적 합의를 이룬 **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**되었고 232조 조치가 국제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**자동차 업계**의 경쟁력에 **부정적 영향**을 미칠 수 있어, **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**해줄 것을 **요청**했다.

※ 미국의 대한(對韓) 자동차 수출 : ('11) 13,473대 → ('17) 54,620대 (Wards Auto)

❹ 미국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(CEO)를 대변하는 **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(BRT)의 조슈아 볼튼**(Joshua Bolten) **회장**과의 면담 계기에,

- **자동차 232조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**를 이룬 만큼 양국간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**한국은 제외**할 수 있도록 **우리 입장을 전달**해줄 것을 요구했다.

□ 자동차 232조에 대해 미국 **의원**들은 물론 **재계 인사들도 자동차 232조 자체 및 한국에 대한 적용에 반대**하는 입장을 표명했다

❶ 스테니 호이어(Steny Hoyer) **하원 민주당 원내총무**는 우리측 우려를 **민주당 내 리더쉽 및 통상담당 주요의원과 공유**하겠다고 밝혔다.

❷ 테리 스웰(Terri Sewell) **하원의원**은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**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준비중**이라며 **향후 동 조사에 적극 대응**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,

❸ 조니 아이잭슨(Johnny Isakson) **조지아주 상원의원**은 자동차 **232조 조치의 심각성**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,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 **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**하겠다고 답변했다.

❹ 그렉 왈든(Greg Walden) **하원 에너지·상무 위원장**은 한미 지유무역협정(FTA)을 지지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으로 **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**을 밝혔다.

❺ 맷 블런트(Matt Blunt) **미 자동차협회 회장**은 232조 조치는 **미국 자동차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**을 줄 수 있는 **비생산적인 조치**라는 입장을 미국 행정부 제출할 계획임을 밝히고, **한국이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점을 고려할 필요**가 있다는 우리의 입장에 공감을 표하였다.

□ 한편, 백 장관 미국 방문 기간 중 **강성천 통상차관보**는 美 **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담당 차관보**(Nazak Nikakthtar) **및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**(NEC, National Economic Council) 관계자를 만나 자동차 232조에 대한 **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**하고 **의견서를 직접 전달**했다.

○ 이에 대해 미측은 자동차 232조 **조사 절차 진행 과정**에서 **양국 정부간 정보 공유** 등 **긴밀히 협의하기를 바란다**는 의사를 밝혔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. 19 ~ 7. 20 양일간 미 상무부가 진행하는 공청회에 **민관합동 사절단**(단장: 통상차관보)**을 파견**하여 **정부 입장을 표명**하고, 범정부적으로 미국 **행정부 및 정재계**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**현장설명활동(아웃리치)을 추진**하는 등 **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**이다.

② 세계가스총회(WGC) 2018 참석 및 한미 에너지 협력 기반 강화

□ 백 장관은 **6. 29. 세계가스총회**(WGC: World Gas Conference) **폐막식에 참석**했다.

○ 세계가스총회는 국제가스연맹 주관하에 전세계 **100여개국이 참여**하는 **가스 관련 세계 최대 행사**로서, 금번 총회는 6. 26(화) 개막식을 시작으로 **100여개 세션에 650명의 연사와 토론자**가 참여했다.

□ 백 장관은 2021년 **차기 세계가스총회의 개최국**이자 **국제가스연맹 회장국**의 에너지 장관으로서 기조연설을 통해 **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**을 소개하고, **재생에너지**와 함께 **가스의 미래 역할이 확대**할 것이라고 강조했다.

○ 특히, 한국에서는 **신규 석탄의 진입이 전면 금지**되고, **봄철 노후 석탄화력의 가동을 중단**하고 있으며, 6대 도시에서 98% 이상의 압축 천연가스(CNG: compressed natural gas) 노선버스 보급률과 함께 **수소차 보급을 위한 생태계 조성 노력**이 진행중이라고 소개했다.

□ 아울러 백장관은 3년 뒤 **한국의 대구에서 개최**하는 **2021년 세계가스총회**에 대한 **관심과 지지를 당부**했다.

2018년 세계가스총회 (WGC)

◈ **(전시회) 약 350여개 기업 참여**(엑슨모빌, 쉘 등 메이저社부터 중소기자재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), 전시장은 행사장 지하1층(순면적 4만m^2)

◈ **(컨퍼런스)** 6.26(화) 개막식을 시작으로 **100여개 세션**에서 **650여명의 연사·패널** 참여

ㅇ 주제: 가스 밸류체인 관련 **일반주제(11개)*** 및 회장국이 선정한 **특별주제(2개)****

* E&P, 저장, 배관, 소매, 활용, 지속가능성, 전략, 시장, LNG, 마케팅, R&D
** Strategic Communication and Outreach, Workforce Development

ㅇ 세션 종류: Keynote, Current Debate, Industry Insights & Technical 등이 있으며, **가장 수준 높은 Keynote**에는 각국 장관 및 메이저 CEO 등이 연사·패널로 참여*

* 미국·인니·캐나다·아르헨티나 에너지부 장관, 엑슨모빌.토탈.쉐브론.QP 회장, BP 사장, IHS 부회장 등

□ 백 장관은 세계가스총회 폐막식에 앞서 6. 28.(목) 데이비드 캐롤(David Carroll) **국제가스연맹회장**, 데이브 맥커디(Dave McCurdy) **미국가스협회 회장**과 면담하여, 차기 국제가스연맹(IGU: International Gas Union) 회장국으로서 **한국의 역할과 세계가스총회(WGC 2021) 준비를 위한 방안**을 논의했다.

ㅇ 또한, 6. 29.(금) 오전에는 세계가스총회 전시회에 참가한 **우리 중소기업***(8개)과 **가스공사를 방문**하고, 특히, **에너지 전환 시대**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**가스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**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.

* WGC 전시 참가 중소기업: 가스트론, 이노켐, 선두전자, 클래드코리아, 원일티엔아이, 발맥스기술, 한국유니콤밸브, 동산밸브

□ 한편, 백장관은 미국 **리사 머카우스키**(Lisa Murkowski) **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장** 및 **그렉 왈든**(Greg Walden) **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**을 면담하여 양국간 **원전수출 협력 및 에너지 교역**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
ㅇ 원전산업의 경우 **한국은 우수한 건설 역량을 보유**하는 등 **미국 원전산업과는 보완 관계**에 있다면서, **미래지향적인 한미 원전 협력 가능성**에 대해 논의했다.

○ 아울러,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장 체결 이후 **한미간 에너지 교역 확대**가 **한국의 에너지 공급망 안정**과 **미국 경제활성화에 기여**하는 등 **양국 모두에 이익**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조진화 사무관(☎044-203-56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